

# 教養教育課程의 問題點과 改善案

朴 榮 根

(中央大 佛語佛文學科)

社會民主化와 大學의 民主化가 等가적 관계인 이상 學園民主化의 眞正한 途대는 正當한 敎과과정의 改편에 의한 올바른 敎育을 통해 말초적·선동적 여론에 쉽게 물리는 집단적 感수성과 획일성을 거부할 줄 아는 知的 優越性과 創造的 個性을 학생들로 하여금 含蓄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해방은 우리 국민에게 日帝의 식민지 敎育을 청산하고 민족 獨立 國家 수립과 그에 상응된 새로운 敎育 體制, 즉 自主的 民族敎育의 正립을 要求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進駐한 미군이 실시한 軍政은 이러한 要求를 아예 묵살했으며, 더군다나 미군정 治하의 敎育 주도 세력으로 發탁된 人사들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途대를 둔 戰後 世界 體制의 改편 과정에 應答하는 政策을 擔當했고 그 수행 과정에서 미국식 敎育 이론과 政策을 무비판적으로 絶對없이 수용했다. 게다가 敬聖제대를 포함한 日本人들의 대학 運營상 의 방식과 특히 敎育 政策에 대한 유입된 경험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敎育 制度는 외형상으로는 미국식 敎育 制度를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제 때의 경험에 뒤섞여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에

서 敎育학을 전공한 일부 敎育학 敎수들과 경직되고 우둔한 敎育 관료의 야합에 의해 이 땅의 참 敎育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들에 의해 조령 모개식의 敎育 政策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敎育의 황폐화는 政權 안보의 파행적인 차원에서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각 대학에서는 빠른 社會 變화와 학원 民主化의 흐름 속에서 대학의 敎과敎育과정의 재조정 움직임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상당수 學生들은 학문의 발전이 냉전 사고와 함께 학계의 보수적 풍토 및 무사안일주의에 의해 많은 弊를 받아 왔다고 지적하면서 분단 조국의 현실을 과학적이고 탄력성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이나 학문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무시하는 특정의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먼 현재의 敎과敎育과정의 改정이 ‘學問的 自由의 爭取運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개편의 요구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적 지식 습득 못지않게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대학에서 실시한 교양교육과정의 여론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학생들이 개편을 원하고 있다. 교양 과목이 고등학교 수준의 연정이라는 점과 그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성의 부족과 교수법의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98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양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답을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進步의 性向이 강한 과목을 選好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맞추어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개편을 실시해서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하고 있거나 교양 과목 개편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종래의 미국식 기능주의에 입각한 지베 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에 바탕을 둔 교양 과목을 과감히 폐지하고 自主·民主·統一을 지향하는 참 교육이 가능한 과목을 다양하게 설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편식성과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진 종전의 교양 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제반 현실을 폭 넓게 진단하고 서구 문화를 비판함으로써 깊은 안목을 갖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금년부터 한국사, 체육, 국민윤리, 교련 등 소위 국책 과목 가운데 교련이 폐지되고 나머지 세 과목의 처리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교양교과과정의 개정 필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아직도 '적당히' 기존의 틀을 고수하려는 무소신과 안일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과연 대학 당국과 교수들이 대학 자율화의 의지를 실천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고, 자율의 요구가 오히려 자율의 거부라는 파행성을 노정시키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과과정 개편 논의를 학점의 안배 문제로 귀

착시켜 논리가 연기 내지 중단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양교과과정 이념과 목적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국책 과목이 야기시킨 폐해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사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릇된 역사 교육이 현실 인식을 방해한 종전의 한국사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역사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적면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는 첩경이다. 민족·자주·통일을 외면한 이제까지의 한국사 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한국사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관점은 체육 과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실 교양교과과정의 올바른 편성은 전공 과정 못지않게 대학의 질적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사회 민주화와 대학 민주화가 등가적 관계인 이상 학원 민주화의 진정한 토대는 정직한 교과과정의 개편에 의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말초적·선동적 여론에 쉽게 물리는 집단적 감수성과 획일성을 거부할 줄 아는 지적 우월성과 창조적 개성을 학생들이 함양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교육의 실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 토론과 상호 비판 의식의 교취가 아니라 지식의 맹목적인 주입과 무조건의 순종을 강요하고, 대학이 지식 전달 장소 내지는 지식 부풀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권의 울퉁은 만남이 아니라 敎權의 一方通行이라는 관행이 신경질적인 위기 의식에 의해 증폭되어 대학을 경직되게 하고 대학을 몸얇이 속여 가두어 놓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양교과과정에 대한 논의 기구에 학생들의 참가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훌륭한 교수에게 받을 권리인 學生權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교과교육과정의 개편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학생들에게 마음 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대학 발전의 옹골찬 열개를 위해 불행한 현상이다.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교권과 학생권의

만남 속에서 교과교육과정의 개편이 대화와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순리이며 흐름이다.

## 2. 敎養敎科課程의 問題點

교육법 제119조 3항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과과정 이수 학점은 졸업 학점(140 학점)의 30%에 해당하는 42 학점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몇 개 대학들의 예를 보면 법정 이수 학점보다 높게 되어 있고, 교양필수 과목과 교양선택 과목의 학점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47/16), 고려대(42/28), 이화여대(80/26), 강원대(67/25), 외국어대(46/33), 연세대(45/31~43), 중앙대(33/23) (위의 숫자는 필수 과목 학점임)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필수 과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교양교육 과목의 편성의 질적 우위는 결국 교양선택 과목에 각 대학이 어떤 과목을 개설하는가에 달려 있다. 더군다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은 몇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뚜렷이 그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延世大의 경우 교양 과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8.5%나 되며 전면 개정 희망도가 52.8%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교양 과목의 수준은 고교 과정과 비슷함(56.2%), 높음(31.9%), 낮음(12%)으로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양 과목의 문제점이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

慶尙大의 경우 교양 과목의 개정을 요구한 학생은 92.3%나 되며 그 문제점으로 진부한 교과과정(50.7%), 교수 방법 및 내용(29.2%), 과밀한 학급 규모(15.3%)를 들고 있다.

그런데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국 1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그 순위는 아래와 같다.

인격의 완성(24.5%), 전공을 위한 기초교육(23.7%), 가치관의 확립(16.7%), 지도자적 인격 도야(15.2%), 올바른 역사관과 국민 의식 고취(12.1%), 객관적·논리적 사고력의 함양(5.

1%), 바른 교육관(1.6%)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결국 교양 과목의 목표가 인격 완성과 전공을 위한 기초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그것들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임을 고려해 볼 때, 각 대학의 교양 과목 개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양교육과정의 목표 설정과 운영 및 개설의 무원칙성 그리고 학교 당국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의지와 결여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각 대학마다 교양교육과정의 이념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개설 과목은 천차만별이다. 江原大 교양교육은 목표하는 인간상을 지적 탐구 능력과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동시에 지적 리더쉽과 사회적 리더쉽 그리고 조화를 갖춘 인간, 곧 창조적 지성인으로 규정하고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즉 ① 언어, 논리, 수학의 구조 파악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배양하고, ② 인간, 사회, 자연에 관한 규범적·경험과학적 지식의 획득을 통해 사물에 관한 탐구와 이해 능력을 배양하며, ③ 역사, 철학, 윤리, 종교, 자연과학, 문학, 예술 등 인간과 관련된 세계에 내재된 의미에 관한 지적 안목을 통해 분석적·종합적 판단 능력을 배양하고, ④ 예술, 종교, 윤리, 사상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가치 추구를 통해 가치 창조와 분별 능력의 배양 등이 곧 그것이다. 교양교육을 인간 교육과 전공 교육을 위한 기초 그리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과정으로 목표 설정을 할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목의 설장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인간 교육의 경우이다. 특히 전공 학문 성취에 중점을 두는 상당수 교수와 대학 책임자들은 교양 과목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대적 요청과 학문의 추세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려 하지 않고 교양교육을 형식적·관례적·획일적인 요식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교육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종전처럼 포괄적이고 애매한 과목 명칭을 탈피하고 1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비판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과목이 요청되며, 특히 '주제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적당주의와 무사안일을 털어 버리고 노동, 공해, 여성 문제, 소득 격차, 교육, 통일 등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굴절 없이 소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 및 교과목 운영과 개성의 원칙이 대학의 실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교양교육과정의 구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능한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가령 교양필수, 교양선택, 대학 계열 선택, 대학별 기초, 학과별 기초 등으로 세분화시킨 대학들이 있다. 이런 경우 학과별 기초는 전공 선택으로, 대학 계열 선택 및 대학별 기초는 교양선택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양 과목에 대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세째, 현행 교양 과목은 사회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즉 현실과 사회를 다각도에서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문의 다양성 및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그 변화를 동태적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이 요청된다. 특히 학생들의 불만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분출하고 있다. 냉전과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미명 아래 철저히 왜곡되고 숨겨져 왔던 우리 민족사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정직한 재조명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과목의 개설이 요청된다.

네째, 교양 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또한 담당 교수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교양필수 과목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학생들 중 1학년의 교양 과목 선택 범위는 거의 전무할 정도이다. 게다가 그 과목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의 연장이라고 상당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담당 교수들의 교양 과목에 대한 무관심, 경험 부족, 안이하고 단조로운 수업 운영 등은 차체에 반성과 아울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교양 과목의 학점 단위를 대부분 3학점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여지가 없다. 교양필수 과목을 과감히 줄이고 학점 단위를 2학점으로 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1학년에 교양선택 과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양 과목이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몇몇 과목에 편중해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과목을 영역별로 나누고 각 영역 안에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 경우 江原大, 延世大, 朝鮮大, 世宗大가 좋은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못지않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학급 편성의 대단위 현상과 교수 정원의 확보이다. 심지어 某대학의 경우 한 과목에 1,000명이나 수강을 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도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양 과목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수강 인원의 과밀화로 말미암아 교육의 파행성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데도 대학 당국은 예산과 시설을 핑계삼아 개선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양 교과목이 주로 인문과학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자연 계열에 보다 많은 과목이 대학 실정에 맞게 조정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정보 시대에 대비해서 컴퓨터에 관한 과목과 도서관의 이용법 및 자료를 제대로 찾고 이용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 등의 개설이 필요하다.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유인물을 통해 소개하는 수준에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문헌 정보가 학문적 차원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대학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또한 교양 과목의 목표가 '창조적 지성인', '지성을 갖춘 민주 시민 내지 문화인'의 양성이라는 시점에서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감성 교육을 계열화하는 방안도 폭 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양교육과정의 문제점은 忠北大 교양교육개선연구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지적에서 확연히 그 실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양과정은 추측컨대 과거의 실패작인 '실험대학'의 모든 모순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대학의 실체였던 계열별 모집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실험대학의 유산 때문에 전공의 고유 시수 확보가 제한을 당하고 그 苦肉之策이 교양의 전공화로 둔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교양의 고유한 성격이 사라지고 인접 학문과의 연관성이라는 것만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교양이 '기초 과목', '도구 과목', '인접 과목' 등으로 그 형식적 형태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교양의 활성화 혹은 재자리 찾기는 실험대학적 유산(학점의 제한, 계열적 편견에 따른 인접 과학의 강조, 학과별 독자성의 결여 등)의 정산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양교육의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학점의 전체적 재조정을 통한 교양의 절대적 학점을 확보하고 전공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 3. 敎養教育課程의 改善案

대학내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 여러 모순점들이 구각에 안치된 채 불식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뼈저린 反省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위주로 하는 서구 지향적인 교과과정과 정권에 의해 끈질기게 이용되어 온 敎育의 政治化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 체계를 조명할 수 있는 학문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편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심분 고려하고 시대적 요청을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획일적인 평준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각 대학마다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 그리고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거기에 상응하는 교과과정의 식단을 다양하게 장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敎育 平準化인 것이다.

물론 교양교육 개편도 우선적으로 교수의 증원, 강의 공간의 확보 및 과밀 학급의 해소를 위한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 교수들의 교수명 및 연구 자세의 개방성, 학교 당국의 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이 급선부로 전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3 학점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을 조정해서 2 학점 단위로 함으로써 개설 과목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제공해서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현실 인식과 비판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특강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해서 학생들의 제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 영역을 확대하는 데 부응할 수 있다. 특히 卍宗大 교과과정 개편심의위원회가 역점을 둔 사항은 특강 과목 신설이다. 신식민지론의 이해, 분단의 사회경제적 이해, 사회사상사 등 12개 과목을 신설해 1 학기부터 월 1 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에서 담보해내지 못하는 진보 성향의 학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의 인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종대의 특강 제도와는 다르지만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주최하는 서울대인의 포럼도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교양 지도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김진균 교수의 '자본주의와 공동체적 삶'과 김수행 교수의 '자본론' 등은 학생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대는 한국사와 국어가 2 학점이고 작문이 1 학점으로 필수이며, 高麗大는 국어와 영어가 2 학점이고 작문이 1 학점으로 필수이다. 특히 江原大의 교양 과목 편성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학은 체육을 제외한 모든 교양 과목 학점을 2 학점으로 함과 동시에 교과목을 논리와 사고의 영역, 자연과 사회 영역, 역사와 사상 영역, 윤리와 가치 영역, 문학과 예술 영역, 전자계산 영역, 보건과 체육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도록 해서 선택의 편향을 배제하고 있다.

둘째, 교양필수 과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소위 국책 과목이었던 과목들의 개설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특히 종전식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담당 과목의 교수 선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경력이 짧은 석사학위 소지의 외래 강사가 교육 과목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신입생에게 보이는 대학의 모습을 감안해서 가급적

전임교수가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과목의 설강이 日帝의 학문적 잔재인 개론·원론 혹은 입문서적인 차원을 지양하고 '주제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한국사 : 한국사와 민족정신, 한국민중사, 한국의 토지 제도, 한국독립운동사, 해방 전후의 이해 등

- 철학개론 : 한국사상의 이해, 동양사상의 이해, 서양철학의 역사, 철학의 근본 문제,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유가사상과 전통사상 등

세네, 교양 과목의 이수능는 가능한 전학년에 걸쳐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1학년에 교양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현상은 차제에 지양되어야 한다. 이수 시기의 융통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 梨花女大의 경우 교양선택 과목이 1·2·3학년에 걸쳐 나누어져 있다.

네째, 교양 교과목을 영역별로 분류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주어야 한다. 미국의 대학 중 교양교육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대학은 하바드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하바드대학은 교양교육을 20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교육 받은 사람에 두고, 특히 교양교육은 ① 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② 도덕과 윤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항상 사고하고 경험의 차원에서 실천하고, ③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대에 관하여 무지한 나머지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좁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교육 내용으로 문학과 예술, 역사연구, 사회의 분석과 윤리의 규명, 과학, 외국문학 등 다섯 분야를 들고 있다. 江原大와 마찬가지로 延世大의 경우 북한의 정치와 사회,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 자유주의와 사회변혁, 현대 마르크시즘과 인간학의 문제들, 현대사회와 윤리, 역사와 이념의 문제, 동양의 인간과 윤리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개설이 요청되는 과목을 나누어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① 지역 연구 분야로서 북한사회, 제3세계, 동구권의 이해 및 아시아 지역권을 들 수 있다.

② 미국식 기능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법을 지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치경제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한국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야 및 민중적 접근 방식을 유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

④ 한국 사회 및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개설 과목은 교육과 이데올로기, 민중문화론, 법과 사회, 산업화와 노동 문제, 사회변동론, 매스컴과 현대사회, 공해와 우리사회 등이다.

⑤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동시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로서 학문간의 유기적 총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과학방법론, 과학과 사회, 산업기술사회의 제문제, 환경오염, 핵의 사회학, 과학사나 과학철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⑥ 여성의 사회적 평등성과 교육 문제에 관련된 과목의 영역으로서 종전의 여성학이 지닌 수평적이고 단세포적 부분을 지양할 수 있는 과목의 개설이 요청된다. 高麗大의 경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자연과학 계열에 여성과 법률, 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 인력과 경제 발전, 여성의 심리적 특성, 한국 가족의 탐구, 성적 편견에 대한 탐구, 현대 여성운동의 연구, 생활원예 등을 개설하고 있다. 朝鮮大의 경우는 교양 과목을 기본교양(9과목), 균형교양(인문계열 6과목, 사회계열 8과목, 자연계열 8과목) 그리고 여성교양 등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여성교양 분야에 한국 여성 운동의 연구, 현대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 인력과 경제 개발을 설강하고 있다.

특히 대학별 사정을 고려해서 각 영역별로 최소 이수 배분제를 둬으로써 편중된 수강의 문제점을 배제해야 한다. 더군다나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과목 특성 및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를 제시함이 필요하다. 즉 종전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목 명칭과 단순한 강의 시간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

〈표 1〉 교양필수 과목

조선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경남대
영 어 사회운동론 문학의 이해 작 문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한국사회와 철학 한국경제사 제 2 외국어	국 어 국어작문 인간과 국가 한국사 외국어 선택 체 육 졸업논문	국 어 작 문 한국사 한국인의 역사의식 근대 한국의 민족 주의 조선 후기 사회와 실학 국민윤리 1,2 체 육	국 어 영 어 1,2,3 기독교개론 한국사 체 육 철학개론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과 언어 작문의 이론과 실제 영 어 1,2 영어실습 1,2 민주시민론 한국사 철학개론 체육 1,2 여성학 제 2 외국어 1,2

〈표 2〉 교양선택 과목 —인문계열—

조선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경남대
한국인의 역사의식 한국철학사 미 학 심리학의 이해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상	철학개론 문학의 이해 언어학의 이해 세계문화사 심리학의 이해 논리학	문학개론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 한 문 언어학개론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고고학개론 미술의 이해 사학개론 철학개론 현대의 철학적 이해 일반논리학 종교학개론 미학개론 음악의 이해	철학 1,2 문학의 이해 1,2 역사의 이해 종교와 인간 1,2 윤리와 사회 1,2 문화와 사상 1,2 미학 1,2	문학의 이해 한문의 이해 역사의 이해 사고와 논리 인간과 교육 음악의 이해 한국의 문회와 사상 미술의 이해

〈표 3〉 교양선택 과목 —사회계열—

조선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경남대
북한사회론 한국정치학 지방자치론 법사회학 한국 정치의 이해 정치경제학원론 산업사회학 법철학	법학동론 행정학의 원리 정치학의 원론 사회학의 개론 경제원론 통계학의 이해 메스컴론 유물사관론 경영학원론	정치학개론 전쟁과 평화 경제학개론 경제적 자유와 평등 사회학개론 인류학개론 심리학개론 지리학개론 메스컴과 현대사회 법학개론 체육학개론 여성과 사회	심리학 1,2 사회학개론 현대정치학의 이해 경제와 사회 1,2 법과 현대사회 1,2 현대 한국사회론 1,2 인류와 문화	시민생활과 법 기업과 사회 경제이론과 응용 정치학 사회학과 현대 사회 인간행등의 이해 한국사회와 메스컴 제 3 세계의 현대사조 현대행정의 이해

고 강의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며 계획서에 따라 수업의 진도를 유지하고 한 학기 강의가 끝난 후 해당 과목에 대한 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안의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강 인원의 과밀화 현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학급 편성이 대단위로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지 학점을 따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 교양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것과 관계된 부분은 시설 공간과 학교의 재정적인 측면 및 학교 당국의 교육에 대한 결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이미 각 대학에 설치된 교양 과목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속화이다. 대개의 경우 각 대학의 위원회의 활동은 극히 수동적이고 미진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수와 학생이 동시에 참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목표를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알맞은 교양 과목의 개설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사회 변동과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양교육의 시행이 그 목표와 일관성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연구·개발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하고 동시에 교양

〈표 4〉 교양선택 과목 - 자연계열 -

조선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경남대
과학철학사 생활과 과학 지구의 탐구 전산학 환경과 공해 과학사 자연과학의 방법론 핵과 생명학 현대 여성운동의 연구 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 인력과 경제 개발 (교양 과목을 기본 교양, 균형교양, 여성교양으로 나누고 여성교양에 세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전산개론 인간과 식량 생태학개론 생명의 기원 지구의 탐구 과학의 발달과 이해  <여성을 위한 교양> 여성과 법규 현대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 인력과 경제 발전 여성의 심리적 특성 한국 가족의 탐구 성적 편견에 대한 탐구 현대 여성운동의 연구 생활원예	수학 1,2 수학 및 연습 1,2 물리학 및 실험 1,2 화학 및 실험 1,2 생물학 및 실험 1,2 지질학 및 실험 1 대기과학 및 실험 2 천문학 및 실험 해양학 및 실험 물리학 및 실험 대기과학 및 실험 <비자연계 학생 균형교양 과목> 수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과학사개론 과학과 환경 통계학 해양학 자연과학개론 생물학 대기과학 현대과학의 구조	수학 1,2 자연과학 1,2 물질, 에너지, 우주 1,2 생명과학 1,2 지구과학 1,2 생리학 1,2 환경과 인간 1,2	생활과 과학 환경과 보건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현대과학의 이해 우주와 지구 조사통계론

〈표 5〉 忠北大 교양 교과목의 영역 및 목표

목표 영역	기초소양 교양	지성적 교양	지식적 교양	문화적 교양	실용적 교양
인문	기초영어 기초외국어 한 문 논술문 작성 등	논리학 집합과 논리 철학의 근본문제들 윤리와 사상 종교의 원리 민족사의 실천적 인식 등	인문학 과목 문학이론 역사각론 철학사 언어학 동양사상 등	문예창작법 민족의 문화 서양문학 이해 등	실용영어 실용외국어 등
사회		우리사회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이해 여성과 사회 기업과 사회 대중의 심리 등	사회과학개론, 원 론, 통론 사회사상사 경제사상사 정치사상사 현대사조론		법과 사회 경제와 사회 기업경영 무역의 실제 등
자연	수학의 기초 컴퓨터 원리와 실기 등	환경생태학 인류와 핵 생명의 기원과 진 화 유전공학의 미래와 인류 등	물리학의 세계 생명의 세계 우주와 지구 과학의 역사 등	과학 기술 문명과 현대사회 등	약과 독 원예화훼 영양과 건강 복식의 역사 등
예술 및 체능		민속문화 이해 등	예술사상사 등	미술이론과 감상 음악이론과 감상 영상예술의 세계 체육 실기 레크리에이션 정신위생 등	생활공예 건축미학 등
통 합	통계와 방법 등	학문과 지성 북한현실과 사상 도시화와 농촌 과학과 사회 교육과 사회 주변 국가와 민족 등	과학방법론 등	대중문화의 비판적 이해 도시문화와 농촌문 화 동·서 문화비교 등	
기타					타자와 속기 등

교육 내용의 개발과 교수법의 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따라서 교양 과목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절적 성숙을 위해 독립된 부서로서 교양교육부의 설치를 고려함이 필요하며 이 기구에서 교양 교육자료사, 시청각교실, 어학실습실, 전산실습실을 총괄함이 요청된다. 특히 유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에 신경을 쓰면 안 되며 서로가 어떻게 하면 대학교육

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世宗大는 교과과정 개편심의위원회를 기구로 두고 그 기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과과정 개편심의위원회는 틀에 짜여진 과목을 반복 학습하는 폐단을 없애고 민주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며 과목의 개설 및 폐지, 강의 평가제 실시 등 민족 자주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

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慶北大의 경우처럼 교양 과목을 인문계 과목(21 과목), 사회계 과목(16 과목), 자연계 과목(19 과목)으로 나누고 각 학과가 실정에 맞게 교과목을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교무처 내지 단과대학 중심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종전 방식을 탈피하고 학과의 자율성과 특성을 재고·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민주화라는 근본적 입장에서도 이 방식에 대한 검토가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필요하다. 결국 전공 과목과 마찬가지로 교양 과목도 과에 일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참고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몇 개 대학의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을 소개하던 앞의 <표 1>~<표 4>와 같다. 또한 교양 교과목을 영역 및 목표로 분류한 忠北大의 시안은 앞으로 이 분야의 개선·연구에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하여 <표 5>에서 소개한다.

#### 4. 맺는 말

이제 우리는 교양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종전까지의 교양교육이 형식적이고 전공의 부속품으로 서자 취급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와 사회의 변천을 적확히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인 내지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은 사실상 중차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학의 구성원들은 각 대학의 실정과 특성에 알맞은 전공 과목과 독립된 교양과정의 개편을 신중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 최소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고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둘째, 학교 당국은 무소신·무사안일·적당주의를 철저히 탈피하고 참 교육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능동적·진취적 태도가 요구된다.

셋째, 교과과정개선위원회의 상설화 및 활성화이다. 특히 몇 개 대학에서처럼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모여서 교양 과목의 개선을 토론·연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들의 구성은 나이와 전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 당국이 강의실, 학급 단위, 교수·강사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교양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